

호모 루덴스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Learning Environment for 'Homo Ludens'



신 범 식 /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Shin, Buhm-Shik / Professor, College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bsshin@uos.ac.kr

한국교육시설학회 설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학회 태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회의 역사를 떠올리면 당연히 故 김진일 명예회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 당시 官으로 부터 인가 문제부터, 교육시설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은 건축학계분들이나 교육 관련부서의 官계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학 전문인들 모두를 아우르며 고루 집속하시며 학회 설립과 활동에 참여를 권하시는 일 등, 이 모든 어려움 과정의 일을 손수 뛰어 다니시면서 그 존재를 이루어내셨던 헌신의 모습입니다. 학회 회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계와 교육계 모두가 故 김진일 명예회장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의 기억 보다는 현실과 내일의 시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회의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학회와 함께 지나온 시간과 우리의 학교시설을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 교육시설(학교시설)은 종교 건축처럼 개화기를 시점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후부터 학교시설의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1969년에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공급된 표준설계도서가 마련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요를 위한 학교시설의 대량 건설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른 바 '콩나물 교실'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 후 1980년대에는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 위생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경제개발과 성장에 따라 학교시설의 질적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1997년에 제 7차 교육과정(1997)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7차 교육과정은 '열린교육', '수준별 학습', '수요자 중심 교육' 등을 교육의 큰 틀을 새롭게 제시

한 바, 이에 따라서 교육 방법,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공급방법과 공간계획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교육 제도나 내용과 시설설립 등은 다분히 일제의 영향 속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잠시 학교시설과 관련한 당시 일제의 상황을 보면, 이미 1885년도에 문부성에서 학교건축도서 설명 및 설계 개요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실내 환경의 질과 위생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남향 배치(이른 바 finger 타입 배치 유도), 중복도의 금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950년도에 일본 학교시설 표준 설계도서가 발표되었고, 이를 실시해 본 후, 표준설계에 로 인한 교육공간의 획일화라는 폐해(finger 타입 배치 등)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55년도부터 표준설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열린 공간'을 위한 공간구성과 계획 방향 제시 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위의 두 나라 학교시설에 관련된 내용의 변화를 비교하면 학교 시설에 관한 내용이 모두 官주도로부터 시작된 후, 근래에 와서 교육 방법의 틀까지 수정되는 점 역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시간적 차이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 유감이긴 합니다만...결국 두 나라 학교시설에 대한 시각의 공통점은 획일적 배치, 획일적 공간 구성과 계획으로부터 탈피인 듯 보입니다. 획일화는 당연히 교육이나 디자인 영역 뿐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 흐름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질적 개선에 비중을 두는 사회적 공감대의 영향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곧 학교시설 건설과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적 특성, IT정보화, 특화된 기술교육 등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학교시설 등의 설립을 위해서 현상설계나 민간 참여의 건설발주 방법 등의 다양화가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우리나라 학교시설 환경은 이미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의 학교시설을 갖추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시설은 궁극적으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주고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집단적으로든 그룹으로든 또는 개인으로든 교육방법과 활동을 다양함을 적절하게 담아줄 수 있는 유연한 물리적, 심리적 안정감의 내, 외부공간이 필요합니다.

금세기 들어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창조, 창의, 복지 등을 내세웁니다. 이들은 모두 한 시대를 만드는 문화를 이루게 하는 기초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이 이들 중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학교 시설에서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함이 당위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기억 속의 학교 공간이란 별로 기억되는 곳도 없겠지만.. 아직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담 장소의 대상으로 떠올러지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문화와 창의성, 잠재력 개발이란 측면에서 저는 학교생활이나 환경을 문화적 시각에서 놀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자는 생각입니다. 일찍이 호이징가는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호이징가, 요한, Homo Ludens, 1939). 호모 루덴스(Homo Ludens, Man of Player)라는 말은 노는 인간 또는 놀이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동물과 다름을 지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현대 기계문명 시대부터는 인간은 호모 파베르(Homo Faber, Man of Maker), 즉 만드는 인간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에서 인간의 놀이 속에는 형식, 상상, 자유로움, 허구 규칙, 질서, 감정, 규제, 신중, 열정, 황홀, 정확성, 세심함, 긴장이완, 휴식 등의 다양한 개념적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곧 창조적, 창의적 발상들의 원천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놀이를 잘 즐기던 아이가 학교에 가면 상상과 열정, 감정 등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생각해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사

회에서는 입시, 교육제도, 교육프로그램, 교육주체, 학교시설 등등이 모두 그물망처럼 엮여져 있어, 이중 어느 하나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교육을 잘한다는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칭 입시사회라는 우리사회도 근래에는 저 출산율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학교시설 부지 확보도 어려워짐에 따라 이제는 작은 규모의 학교시설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 수의 큰 학교시설에서는 공간의 세분화가 자유로울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의 세분화는 학생들에게 공간에 대한 익숙함과 그러한 인식이 어느 공간에서든 공간에 적합한 자발적인 행위가 일어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며 곧 창의적 잠재력을 일깨우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다양한 방법과 공간의 활용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학교시설의 그룹화과 옥외활동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는 학교 내에서 배움, 가정교육,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 학교의 물리적 환경 등등, 이들 모두가 각기 다른 결과만을 부르짖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한되고 규격화된 공간 내에서 생활이란, 규격화되기 쉬워 자연히 획일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따라서 사고도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잠재력이나 창의력 개발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된 특별교실들(거의 표준화 된)도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비롯된 바,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교실에서 개성 있는 독특한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다양성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간의 규모와 형상도 이를 뒷받침 되어야겠습니다. 이미 몇몇 학교 건축설계 과정에서 학교 주체(학교관리자, 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가가 구성하는 공간들의 활용 방법을 주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울러 교육주체들에게 교육시설 건축에 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우리민족은 전형적으로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조흥운, 한국문화론, 2001). 저 역시 놀이는 일과 교육, 사회활동, 여가, 신앙 등이 함께 얽히고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네 생활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학교시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삶의 시작과 성장의 인상적이고 중심적 공간으로 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한 회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